

지난 날 내 고향의 찬란한 가을로 돌아가고 싶다

작가 에세이

주현진
수필가
광주문인협회 이사



그곳은 바다가에 연한 해안 마을이다. 주변 산에 소나무가 울창하고 마을 앞 바다가 마치 호수처럼 잔잔해 송호(松湖)라 불린다. 갯벌에서는 풍성한 해산물이 생산된다. 그곳의 가을날은 찬란했고 아름다웠다. 주변의 들녘은 누렇다 못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곳곳에 허수아비는 혼자 취해 우스꽝스럽게 서 있다. 나락을 수확하고 남은 지푸라기 더미도 쌓여있다. 시절을 만난 참새들은 때를 지어서 이 눈 저 밭으로 몰려다니고, 흙 팔매질로 새를 쫓는 아이들의 목소리만 들 가운데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어쩌면 해지는 산그늘을 타고 오는 서늘한 바람의 탓이었을까. 반쯤은 마르고 푸석해진 풀잎이 이제 막 늙기 시작하는 밭 언덕에는 늙은 호박덩이들이 잠시 낮잠을 즐기는가 하면 낮고 쓸쓸한 무덤들 너머로 총총히 어우러진 억새들이 춤을 추는 듯이 흰 머리채를 흔들거리고 있었다. 피약벌 내리는 햇강의 지붕 위에는 붉은 고추가 널리고, 뒤뜰에서는 휘어진 나뭇가지, 끝의 색 바랜 잎사귀들을 제치고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고운 감들이 얼굴 자랑을 했다. 동백도 밤송이들도 그렇게 익고, 가시나무 울타리에 셀 수 없이 탕자들까지도 노란색으로 눈부셨다. 또 어느 해나 그렇듯이 그곳의 가을은 개울을 막고 물을 퍼내서 고기를 잡는 일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정말 어떻게 그리 많은 물고기가 흐린 물속에서 어울려 살고 있었을까.

그 곳의 가을은 늘 그렇게 왔고, 그때마다 드넓은 들을 에둘러서 흐르는 긴 강물은 어느 때보다 더 깊었다. 바람이 한

점 없어도 물결이 있었고 그것들은 신명이 난 듯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기우뚱하게 돛을 펼치고 고등어를 잔뜩 싣고 통통거리며 바다를 거슬러 올라 온 때쯤이면 서쪽 산등성이에 지는 노을을 뒤에 두고 기러기들은 끼적끼적 울면서 들녘을 날았다. 어떤 놈은 혼자 맨 앞장을 서고 다른 것들은 양쪽으로 나란히 줄을 지어 깃털구름의 하늘을 가로지르기도 했다. 와글 와글 강바닥을 훑던 청둥오리들도 행여나 기러기들에게 질까 봐 새 까맣게 날아오르고 내려앉기를 온종일 거듭했다. 그럴 때에는 강물까지도 가만히 있

“지금은 거의 사라지거나 변하고 말았지만, 풍경들만은 내 마음속에 오롯이 남아 있다. 그래서일까 나는 황폐해진 요즘의 고향이 아닌, 옛 고향의 모습을 배경으로 꿈을 꾸다.”

지 못하고 일없이 출렁거리다가 넓은 갯벌에 몸을 던져 스스로 찾아드는 모양은 한 편으로 애잔했다.

이렇듯 가을이 깊어지다 보면 그곳의 사람들은 누구나 무척 부산했다. 어느 한 사람도 쉴 틈이 없이 종종걸음으로 논과 밭을 오고 가느라 발바닥이 부르들 지경이었다. 더욱이 어머니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부엌일은 말 할 것도 없고, 텃밭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들을 더듬어야 하는 힘들고 고된 일이 끝이 없었다. 실을 잣고 베를 짜고 옷을 짓는 일까지 그 손으로 다 해냈다. 그렇다고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죽어라고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이 다음해 봄이 되기도 전에 바닥을 볼지언정, 곡식을 팔

아 돈을 사서 자식들의 학비로 보내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것은 어찌하라.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같지만, 특히 그이들에게는 자식들을 멀리 도시로 보내서 공부시키는 것이 살아가는 낙이요 보람이었으므로, 그래서 그 곳 들녘의 하루해는 너무도 짧았다. 들의 끝머리에서부터 집 안마당에까지 등에 벗집을 지고 나르는 남정네들에게는 잠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시간도 아까웠다. 논둑에 선 채로 텅텅한 막걸리 한 사발에 목을 축이고, 다시 논바닥에 들어가서 허리를 굽히는 모습들은 절대 한 폭의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곳 사람들의 생활이었으며 현실이었다.

아침때가 되어서 새참을 머리에 이고 들길을 건너오는 아낙들의 실루엣마저도 그곳에서는 새삼스럽지 않은 일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가을을 살아가는 이들은 틈만 나면 지계막대기로 장단을 맞추며 육자배기에 흥타령을 주고 받았고, 더욱 흥이 오르면 수제비 칼국수를 나눠 먹으며 밤새도록 갱매 갱매 풍물도 쳤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공터에 영화가 들어오면 줄을 지어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거기에서 처녀총각들은 사랑도 나누었다. 그리고 또 면에서 나락수매가 있는 날이면 어른이건 애들이건 집안을 비우다시피 했고, 누구네 집에 갑자기 초상이 나가거나 새신랑이라도 드는 날이면 온 동네 사람들은 여지없이 일손을 놓았다.

이것이 바로 내 옛 고향의 가을날이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거나 변하고 말았지만, 이런 풍경들만은 내 마음속에 오롯이 남아 있다. 그래서일까 나는 황폐해진 요즘의 고향이 아닌, 옛 고향의 모습을 배경으로 꿈을 꾸다. 내가 맨발로 강둑을 달리며 물총새를 쫓고, 쏟아질듯 한 밤하늘의 별을 세며 소월과 같은 시인이 되기를 희망하던 지난 날, 내 고향의 찬란한 가을로 돌아가고 싶다.



기고 류진창 (주)와이드팜 회장·수필가

부모는 나의 스승

부모는 자식의 으뜸 스승이었는데 아버지는 나의 어떤 스승이 되시지요?

나를 끔찍 못 하게 하는 딸의 물음이다. 내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은 아버지다. 어릴 적 새벽잠에서 깨신 아버지는 사육신 할아버지를 비롯한 선조들의 얼을 기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구구단으로 뱀뱀 뭍뭍을 합산하고 빼는 실용적 참교육을 해주셨다. 내가 대학 1학년 다닐 때다. 하교 시간에 시외버스 정류장 옆 정미소로 4시까지 오라는 것이다. 나는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친구 둘과 같이 갔다. 아버지는 두 대의 마차에 일꾼과 같이 왕겨를 담고 계셨다. 나를 보자마자 하얗게 뒤집어쓴 쌀겨 먼지를 털어내시면서, 이제는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일꾼과 같이 왕겨를 담으라 하신다. 너를 이만큼 키워 냈으니 이제 부모의 일을 도울 때가 되었을 것이다. 언제까지 아버지를 평생 일만 하도록 내 버려둘 수 없지 않겠느냐? 우리는 곧 늙어 병들어 죽고 나면 다 너희들 것인데 왜, 아버지만이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 꿈 짝 못할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아버지는 젊은 나이 스물셋에 마을 구장(區長)을 하셨다.

민족의 얼을 끊어버리려는 일제의 서슬은 우리의 고유 대명절 설날에 치도(治道) 공사의 명분으로 울력을 시켰다. 동네 구장인 아버지는 설날이 되기 전 말끔히 치도를 끝냈다. 물론 설 쇠기 위해서다. 설날 아침 고을 관헌(官憲)이 아버지를 불러내더니, 왜 마을 사람을 동원해서 치도 울력을 하지 않느냐면서 지휘봉으로 아버지를 마구 내리쳤다. 우리 마을은 이미 치도를 마쳤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두들겨 맞던 아버지는 관헌을 불끈 들어 올려 마을 앞 미나리밭에 거꾸로 쳐박아 버렸다. 그리고 그길로 관헌의 자전거를 타고 십리 길 지역 헌병대장을 찾아가 자조지종을 설명하고서 나의 행동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대답해라. 대장은 당신의 행동은 매우 정당합니다. 그렇다면 설 쇠기를 방해한 당신의 부하에게는 어떤 벌을 줄 것이며, 그런 행동을 바로잡은 나에게 어떤 상을 내릴 것인지 대답해라. 잠시 머뭇거리며 난처해하는 대장에게, 다그쳐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 사건의 책임이 없다는 점만 분명히 대답하라 하니, 당신에게는 절대 책임

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하의 처벌은 따지지 않겠다. 퇴로를 비켜준 명쾌한 처방이다. 나의 당당한 위세에 관헌대장이 꿈쩍 못 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의기 넘치는 힘 자랑 무용담이다.

겨울 농한기의 시골은 마을마다 도박이 성행했다. 우리 집 사랑방은 아버지 또래 분들이 방 가득 채우고, 일꾼 방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저녁이면 모여들어 내기 놀이나 도박을 하였다. 나는 상하방 심부름을 하고 나면 부스르기 푼돈이 떨어지는 쓸쓸한 재미가 있어 자주 들랑거렸다. 어깨 넘어 도박판을 기웃거리러는 나에게 아버지는 일본 관헌을 미나리밭에 쳐 박은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다시 들려주시면서 “남자는 힘이 인격이다” 주연(酒宴)의 자리에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술잔은 힘 있는 사람에게 먼저 건다. 이것이 힘의 위력이다. 난장의 도박판에서 판 돈을 거리낌 없이 주머니에 넣고 나와도 시비를 떨쳐내지 못할 힘이 이라면 애초부터 화투를 만지지 마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빼놓을 수 없는 나의 교훈이다.

지금쯤 아버지는 나의 어떤 스승일까요?

술 취해 늦게 들어오는 내 앞에 무릎 꿇고 묻는 딸이다. 대답하실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졸음과 조르는 지구력에 밀려 그래! 그래! 시킨 대로 할 게 하였더니, 내일 아침부터 새벽 교회에 나가 참회하십시오. 설상가상이다. 그도 그래! 그래! 하였더니, 다음날 새벽 4시에 여지없이 잠을 깨운다.

우리 인간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하여 성현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따르려 노력하지 않겠나. 아빠라는 이름을 지냈다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정말 오갈 곳 없는 정신적 고아가 된다. 게(蟹)는 옆으로 가면서 새끼들 에게는 반드시 앞만 보고 가라고 회초리를 든단다. 그 어미 게의 입장으로 아빠를 이해해 주면 어찌겠니? 이렇게 가을이 되면 잊지 않고 겨드랑이에 책 끼우고 등화기 친하려는 아빠가 그나마 대견하지 않느냐? 그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묻혀준 허물을 이제 씻어 내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아빠란다. 부모가 뭤다 한 스승 노릇은 사회가 감당해 주고, 그리고 스스로 깨우치면 된다는 부족한 아빠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겠다.

긍정과 집념이 곧 성공의 길

세상읽기

한정규
자유기고가



그래 맞아 하는 긍정과 그건 안 돼 하는 부정의 차이는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공을 위해서는 그래 맞아 그리고 집념을 갖고 성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건 안 돼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될 일이 없다.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되도 하는 수 없지 그런 태도로는 될 일도 안 된다.

미국인 에디슨이 어두운 밤을 흰하게 밝히는 전구를 만들기 위해 255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남다른 집념으로 접근 그 결과 성공을 했듯, 성

공을 위해서는 긍정은 물론 집념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남다른 집념과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된다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한국의 선거 역사상 여덟 번 낙선하고 아홉 번째 국회의원에 당선 된 사람이 있다. 대단한 집념의 사나이였다.

그가 국회의원에 꼭 당선되고 말겠다는 집념, 그리고 의지력의 필요성, 무한의 인내, 그 모든 것을 보여줬다. 그는 국회의원을 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 대단한 인간 승리자다. 뿐만 아니라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실패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 명심해야 한다.

실패가 싫거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 중에서도 돌이킬

수없는 크나큰 실패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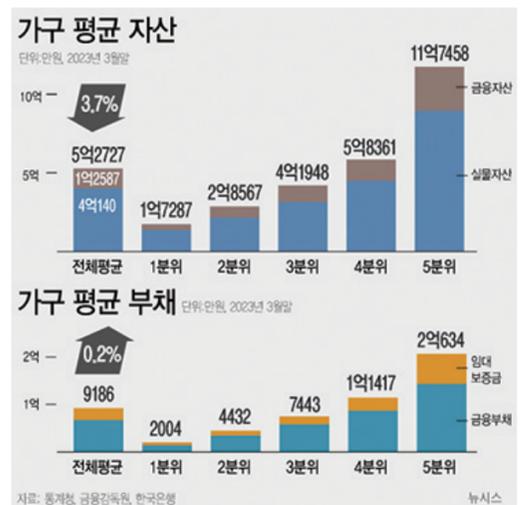
전 일본인쇄회장 기타지마오리에는 실패하는 것이 싫어 도망치는 자는 패배자다. 실패를 무릅쓰고 부딪치는 것이 중요하더라 했다. 이 또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집념을 갖고 도전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처음부터 실패를 예상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것과 실패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은 그 결과가 다르다. 달라도 크게 다르다.

긍정은 자신감과 상통한 말이기도 하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야 말겠다는, 해내고야 말겠다는, 성취욕 그것 없인 성공할 순 없다.

또한 성공을 위해서는 긍정과 집념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특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